

가뭄대책비 90억 투입·벼 재해보험 가입 독려

전남도, 이달까지 충분한 비 없어 가뭄 극복 총력

진도·무안·해남 등 저수지 15만8000㎡ 준설

전남도가 봄 가뭄 장기화에 따라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해 2차 도 예비비와 국비 등을 포함한 가뭄 대책비 90억8000만원을 5일까지 추가로 투입한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6월 말까지 충분한 비 예보가 없어 이미 모내기를 마친 농민의 경우 벼 재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 평균 강수량은 160mm로 평년(423mm)의 38%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전남지역 9개 군 131지구 4000여ha에서 물이 없어 모내기가 지연되

고, 일부 이양된 논에서는 물마름과 시들음, 고사 등 피해가 발생했다. 앞으로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 포기 등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2차 도 예비비 15억원이 포함된 가뭄대책비 50억원과 농림축산식품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25억원, 저수지준설사업비 15억8000만원 등 총 90억8000만 원을 확보해 5일까지 투입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 투입되는 가뭄대책비는 신안, 무안, 장흥 등 가뭄 우심 시군을 우선

으로 차등 지원하며 하상굴착, 가뭄막이, 간이양수장, 소용 관정개발 등 긴급 급수 대책비로 쓰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준설 대상지는 진도 둔전제, 내연제, 수장제를 비롯해 무안 현경제와 남양제, 해남 수장제 등 15만8000㎡ 규모다. 준설한 물량만큼 농업용수를 확보할 수 있어 향후 가뭄 대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남도는 예상하고 있다. 진도, 무안, 해남 등은 최근 비가 안 내려 저수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지역이다.

모내기를 끝낸 농민에 대해서는 벼 시들 현상과 고사 등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벼 등 농작물재해보험은 순보험료의 8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므로 가입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실제 1ha(3000평) 경작 농가의 경우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나 순보험료 45만원 가운데 약 9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도는 그동안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시·군 전략회의 개최와 반상회, 시·군 소식지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홍보했으나 5월 말 현재 벼 재해보험 가입률은 지난해(7만5000여ha)보다 저조해 막바지 가입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김갑섭 전남지사 권한대행은 “봄 가뭄 장기화로 농심이 타들어가는 상황이 매우 위중한 점을 감안,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할 계획”이라며 “농민들께서도 가뭄극복에 적극 동참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

목타는 봄 가뭄에 섬도 타들어 가 가거도 ‘알쌔’ 100년만에 말랐다

“생수 사다 이 닦아”

식당도 문 닫을 판

극심한 봄 가뭄에 국토 최서남단 가거도도 타 들어가고 있다.

풍족하지 않은 급수시설 속에 자연이 머금은 물로 생활해오던 주민들은 산도, 섬도 심각한 이번 가뭄에는 걱정이 태산이다. 4일 가거도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계속된 가뭄에 마을 중심가 우물이 거의 바닥을 드러냈다.

“알쌔”이라 불리는 이 우물은 급수원으로 사용되다가 수도 시설이 보급된 뒤로는 허드렛일에 필요한 물을 공급해왔다. 마을 노인들은 “알쌔이 마른 건 10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혀를 내둘렀다.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최고봉(639m)인 독실산도 말라가고 있다.

정상부에 있는 레이더 기지 대원들은 기존에는 해발 500m 부근에서 물

을 끌어올렸지만, 이제는 마을까지 내려와 물을 길어가고 있다고 마을 주민은 전했다.

마을 주민 임진욱씨는 “독실산은 비가 오지 않아도 구름이 머금은 습기로 항상 젖어있었다”며 “그러나 강수량이 부족해 후박나무 열매들이 수분을 흡수해서인지 올해는 산도, 섬도 모두 메말랐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임씨는 “평소 계곡에 있는 물을 집수해 대비했다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물이 부족하니 식사 때도 그릇을 덜 쓰고 빨래는 모아서 하는 등 불편이 일상이 됐다고 그는 호소했다.

외지 손님을 받는 식당은 문을 닫아야 할 형편이다. 한 식당 운영자는 “외지인들이 슈퍼마켓에서 생수를 사다가 이를 닦는 판에 식당에서 쓸 물이 있겠느냐”며 “손님도 못 받으니 (육지로)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성선기자 sslee@

필리핀서 방화 한국인 1명 숨져

英 런던서 차량 테러 6명 사망

영국 런던경찰은 3일(현지시간) 밤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발생한 차량·흉기 테러로 현재까지 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런던경찰은 4일 새벽 성명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경찰에 의해 사살된 3명의 공격자들 이외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20명이 6개 병원으로 후송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3일 오후 10시8분 최초 신고를 접수했고 이로부터 8분 지난 시점에 무장 경찰들이 현장에서 남성 용의자 3명과 대치해 이들을 사살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공항과 공군기지 인근에 있는 ‘리조트 월드 마닐라’의 카지노에서 무장 강도가 불을 질러 한국인 1명을 포함해 37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런던서 또 테러

3일(현지시간) 밤 영국 런던 시내 런던 브리지와 인근 버러 마켓에서 차량·흉기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응급구조대가 현장에서 한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런던경찰은 4일 새벽 성명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우리는 경찰에 의해 사살된 3명의 공격자들 이외 6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무등산권 지질학적 가치 우수”

주상절리·공룡화석지 등 높은 평가 ... 죽녹원 등 문화명소도

광주 국제워크숍 성료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가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무등산권 지질공원 국제워크숍에 참석한 세계지질공원 전문위원들로부터 무등산권의 지질학적 가치가 세계 우수 지질공원과 견주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무등산 주상절리, 화순 서유리 공룡화석지, 고인돌 유적지, 운주사 등에

높은 평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담양 죽녹원, 호남기후변화체험관 등은 자연과 인간, 기후변화 대응, 역사, 문화가 어우러진 역사문화명소로 꼽혔다.

광주 북구 청풍동에 자리 잡은 지오빌리지는 세계 곳곳에 있는 유사한 지오빌리지보다 우수하다고 호평했다.

청풍동 지오빌리지는 무릎주막을 운영하고 지역의 가공 농산물을 판매하는 등 지역민 스스로 지질공원을 활용해 지역경

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전문위원들은 이 같은 점이 세계지질공원의 목적과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들은 무등산권 지질공원을 대중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지질공원 전체를 안내하는 종합안내센터 구축 등을 제안했다.

또 우수 지질자원을 지역경제, 인문학 등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지질공원으로 조성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연구, 발전시킬

것을 당부했다.

국제워크숍은 지난달 29일부터 4일까지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부의장 이브라힘 꼬우 등 국내외 전문가 12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술대회와 현장방문 등으로 이뤄졌다. 워크숍 결과는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릴 예정인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현장심사 자료로 활용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해 3월부터 대한지질학회 용역 추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IGGP) 예비심사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유네스코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내년 4월 최종 결정된다.

세계지질공원 인증 신청 면적은 광주와 담양, 화순 일부 등으로 총 1051.36km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美 트럼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선언

파리협정 존폐 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의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를 공식으로 발표했다.

이로써 미국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비준한 지 9개월 만에 파리 기후협정을 백지화했다. 세계 2위 탄소 배출국인 미국의 탈퇴 선언으로 파리협정은 사실상 존폐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의 앞세워 국제사회의 약속을 파기한 데 대한 비판도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터 미

국은 파리협정의 전면적인 이행을 중단한다”며 파리협정 탈퇴를 직접 발표했다.

그는 “파리협정은 미국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며 “나는 미국 국민을 보호할 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대신 미국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더 좋은 조건의 새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새로운 협정은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담과 책임을 공유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공평한 부담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섬나 이번주 강제 송환 ... 인천지검 조사

49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유섬나(51)씨가 이번 주 강제송환되면 3년 전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특별수사팀이 꾸려졌던 인천지검에서 조사를 받는다.

4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한국에서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운영하면서 계열사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48억 원을 받는 등 총 492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은 지난해 3월 유씨를 한국에 돌려보내야 한다고 결정했고, 그해 6월 마뉴엘 발스 당시 총리가 송환 결정문에 최종 서명했다. 법무부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통보받고 오는 6일(현지시간) 유씨의 신병을 인수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당일 프랑스 파리에서 국적기를 타고 출발하면 다음 날인 7일 오후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부동산 실무전문가 박관식대표의 특별세미나

수도권 최고의 개발지 평택, 제2의 강남을 주목하라!

금리인상 및 혼돈스러운 경제상황과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시장 평택의 아파트, 상가, 토지 등 가장 매력적인 투자처는 무엇일까? 평택 삼성 입주 및 미군부대 이전 등으로 인한 투자처는 어디? 중심은데 콩나고 돈심은데 돈난다 평택의 돈나무가 열리는 노른자위를 찾아라! 평택의 “제2의 강남”은 어디일까? 평택 삼성반도체 1만명 이상 채용!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행복한 부동산 강의와 상담이 함께하는 [박관식 전문가의 방송 안내]

▶ WOW 한국경제TV ‘부동산하이라인’ 생방송 출연중!! (매주 일요일 저녁7시(본방) / 밤12시(재방))

강의내용

- ✔ 평택 및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전망
- ✔ 평택 및 전국 토지시장의 전망과 분석
- ✔ 평택의 최고 노른자위를 찾아라!
- ✔ 평택 및 개발지에서 성공투자하는 법!
- ✔ 자녀, 손주 대기업 쉽게 취업하는 비법공개!

무료 특강 일시 및 장소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7일 수요일 / 오후 2시~5시 • 장소 :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214호 (광주시 서구 치평동 1159-2)
서울 여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17년 6월 12일 월요일 / 오후 2시~5시 • 장소 : 여의도동 25-11 유수홀딩스(한진해운)빌딩 5층 (여의도역 4번 출구에서 100m 직진 후 좌회전 100m 우측)

* 당일 혼잡할 수 있으니 사전접수 바랍니다 * 당일 특별 무료상담 진행

(KLD) 한국토지개발원

부동산세미나 문의 : 02)595-4236, 4237